

“佛心 춤사위로...영산재는 내 운명”

상과예술 '제2의 최승희' 무용가 김미영씨



육천범음대학에서 영산재 연수를 받고 있는 무용수 김미영 선생이 작법무(作法舞)에 심취해 있다.



보살춤의 전설, 무용가 최승희(1911~1969)가 김미영으로 되살아났다. 아버지를 스승으로 둔 여섯 살 소녀의 남다른 춤사위는 그로부터 평생의 시간을 아우른다. 1979년 캐나다로 월남한 신 떠나며 가슴에 인(印)으로 남은 것은 아버지였다. 기독교 환경인 캐나다에서 한 마음선원의 법당 한편에 연등을 밝혀왔다. 무용인에게 있어 몸이란 평생을 켜켜이 갈고 다듬어야 하는 악기와 같은 것. 그녀의 무용 인생이 한국 전통 불교의식 '영산재'와 만나 재도약을 꿈꾼다.

무용과 함께 한 김미영(64·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장) 선생의 인생은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환갑(還甲)을 훌쩍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고운 자태다. 그러한 그녀가 한국 전통의 불교 의식과 작법무의 뿌리를 찾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육천범음대학(학장 일운)을 찾았다. 그녀의 아호 또한 '수류(水流)'다. 그리고 매년 가을 캐나다에서 '수류무용제'를 연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예술인의 피는 뜨겁다. "아버지(김윤학·민족무용가)의 모든 것이 울다고 여겼지요. 아버지의 무용을 배우다 보니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의 부친은 1940년대 일본에서 현대무용을 배우고 돌아와 지금의 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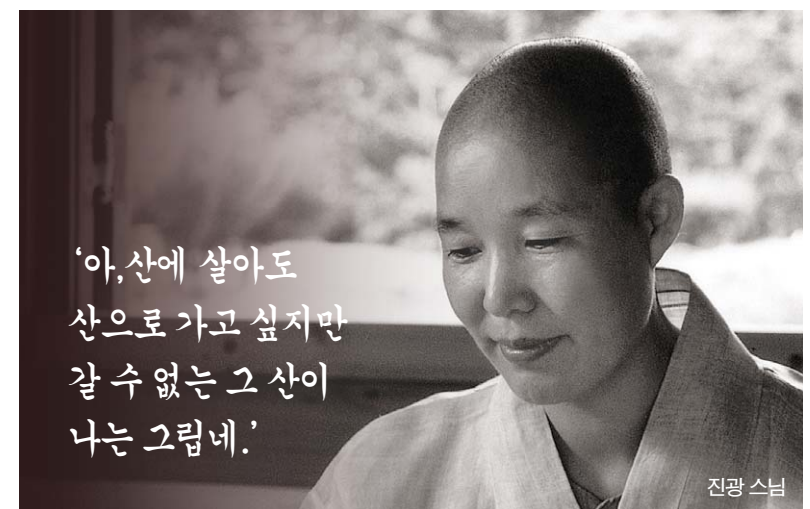
자리에 있던 극장 '시공간'의 무대에 올랐다. '석불' '승무' 등 불교적 색채의 무용을 왕성히 선보였고 딸 김미영을 제자로 삼아 '장고춤'을 전수했다. '제2의 최승희'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1995년 만 73세로 이생을 마감하고 49재를 지낼 적에 한국의 불교의식 영산재와 처음 만났다. 부조리한 한국의 공연계가 싫어 타국으로 떠난 지 16년 만에 아버지가 일깨워주는 죽비였다.

"아버지의 한(恨)이 저에게 재주로 전수됐습니다. 무용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한국불교의식을 널리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육신 없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진심(真心)이다. "저에게 남은 인생을 영산재를 통해 승화시켜 보렵니다."

받아낸 불성(佛性)이 한국 전통의 불교 의식과 만나 종합 예술로 꽃피울 날을 고대한다. 섭수(攝受)의 법음(法音)으로 울려 퍼지는 영산회상의 재현을 꿈꾼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문화유산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영산재 연수는 7월 초까지 진행된다. 현재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는 캐나다 정부 지원으로 미래 전문 무용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한국 전통무용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하는데 주력한다.

가연숙 기자 ornflower@daum.net



'아,산에 살아도 산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산이 나는 그림네.'

진광 스님

가슴으로 듣는 詩語

진광 스님 오디오북 '구름나그네' 발매

자유로운 길 위에서 읊는 다정한 시 한 수, 구름과 물을 벗하여 걸어가는 운수남자(雲水男子)의 노래다. 구름문(雲門)으로 들어서 서른 번의 불을 지낸 스님의 삶이 목청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간다.

넋가슴 가슴마다 고이 어루만져주는 청아한 목소리는 고요한 마음을 관조한다. '새벽 별 벗하여 법당으로 향하며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리.' 스님의 굳은 의지가 청아한 평화의 결실을 맺는다.

이문재·나태주·임의진·곽재구·박노해·임길택·김선우·강제운 시인을 비롯 유유시인 정태춘에서 J.메스필드·헤르만 헤세까지, 곡마다 수놓아진 배경음악은 남녘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떠돌이별 임의진씨가 선곡을 맡았다. 붓다와 예수의 제자가 종교를 넘어 도반의



진광 스님이 발매한 오디오북 '구름나그네'.

사이로 도타은 화해와 우정을 나눈다. <구름나그네>는 법정 스님의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김세원 낭독)에 이은 아울로스 미디어의 두 번째 오디오북(AudioBook) 시리즈다. (02)922-0100

가연숙 기자

팝아트로 표현한 불상은?

화가 김태연씨 '이 가벼운 날들의 삶'展 27일까지

하이힐을 신은 보살의 S라인! 고대 미술에 팝아트 소재를 접목하여 재해석해온 화가 김태연은 6월 27일까지 서울 신사동 프라이어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젊은 작가다. 직접 흙이나 황토를 이용해 흙벽화 기법으로 캔버스를 제작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둔황의 벽화를 일상으로 가져온다.

'일회용 삼존불'의 연화대에 재현용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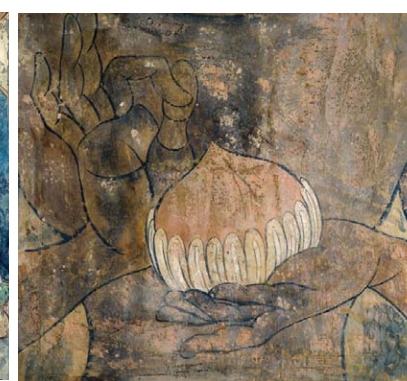
컵이 올라 있다. 그 안에 담긴 티백에서 우려낸 향기가 맡음이 되어 청중으로 모인 다양한 일회용품에게 설법을 하는 듯하다. 좌우 보처로 자리한 면봉과 젓가락은 본존인 종이컵의 위용을 돋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둔황 막고굴 벽화'에서 보살의 수인에 얹어진 천도복숭아를 감싼 스티로폼 재질의 보충재는 과일의 생기를 유지시켜준다. 천 년간 변치않은 신선도 유지의 비결이 재기 발랄하다.

깊이 있는 화가의 시각은 엄숙함 너머의



일회용 삼존불, 2007.

인간미를 통해 일상의 공감대로 초대한다. 재치 있는 소통의 방식은 현재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의 우한성과 부질없음을 상기시킨다. 현대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숭배



둔황 막고굴 벽화(부분), 2007.

를 작가 나름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환기한다. 세밀화를 통한 고정관념의 역설은 현대의 소비 아이러ンを 반영한다. (02)545-4702

가연숙 기자

화가 김상용씨 초대展

갤러리 갈라에서 27일까지

할나삼세(刹那三世). 순간의 장을 이야기한다.

삶의 연속성의 주관적인 탐구를 화폭을 통해 펼쳐온 화가 김상용의 초대전이 서울 인사동 갤라에서 6월 27일까지 열린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흐름을 중심으로 나의 원초적인 근원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한다. 시공은 계절의 순환 또는 무의식적인 과거의 관념으로 표현되고 그림 장부에 화가의 자화상이 투영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선(不二)의 평등함으로 전이 시킨다. (02)725-4250

가연숙 기자

조선 회암사가 무대에

연극 '매혹' 7월 4일부터

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는 연극 매혹(연출 김성노)을 7월 4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무대 위에 올린다.

인간의 욕망은 소유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가. 역물의 조선왕실 정적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웅성했던 회암사, 그 곳에서 펼쳐지는 눈 먼 인간들의 욕망을 다룬 이야기다.

세상의 모두를 가진 남자였으나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남자 이방원, 그의 악업에 얽힌 연연의 순환 고리가 폐허가 된 회암사터를 배경으로 무상(無常)의 도리를 펼친다. (02)306-2005

가연숙 기자

고무신코 만 행 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솔리퍼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사부대중 선물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지압·동칼창

가격 15,000원

사이즈: 230-280

세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방사단화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창

본사, 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물관 출판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옷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옷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연하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중식]

천연 유향 온탕욕을 가정에서 즐기세요.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 블랙솔트

히말리아산 천연유향소금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유향온천

유향온천은 유향, 나트륨 성분과 알칼리성 라듐 등으로 아토피, 무좀, 비듬, 피부병, 주부습진, 피부미용, 성장결핍, 피로회복, 신경통, 관절염, 만성습진,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문헌참조)

대자연의 선물 블랙솔트

블랙솔트는 고대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열(5,000℃이상) 의해 해수(바닷물)가 증발되며 산으로 형성된 천연염과 용암에서 분출된 천연유향 성분으로 고대 청정해수를 구성하는 천연 미네랄과 무기질이 원형 그대로 함유된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향온천보다 탁월한 천연유향 온탕을 가정에서 즐긴다

블랙솔트는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족염 성분과 천연유향 성분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욕에 따뜻한 물과 블랙솔트를 풀어주시면 유향온천보다 효능이 뛰어난 천연유향해수 온탕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좀, 비듬 등에도 효능

100:1 정도의 물과 희석하여 완전히 용해된후 인체의 해당부위에 충분히 스며들 후 가볍게 마사지 한 후 씻어주시기를 반복하면 아토피등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솔트는 피부미용, 습진, 신경통에도 최고!

블랙솔트에 함유된 자족염 성분은 피부 미용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피지 제거 작용이 우수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부패시키는 산화력을 억제하여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매우 탁월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독점수입판매: 블랙솔트코리아 02)723-9184

농협: 강환영 053-12-125418 원산지: 히말리아